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검사 · 격리 관리 만전

전주시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강화된 검사 및 격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항공권과 여권 등을 소지해 화산선별진료소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 PCR 검사 미실시 대상자에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 병원치료를 실시하게 되며, 시는 격리기간 및 격리장소 이탈 금지 등 격리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격리기간 동안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확진자 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에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는 9일 0시 기준으로 총 38명으로, 이 중 29명은 PCR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자 중 3명은 양성판정(양성률 10.3%)을 받아 현재 재택치료 중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독감 환자도 급증하면서 트윈데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및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후 국내 유입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사 및 격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녹아 내리는 전주천 강추위가 지나고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며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전주천의 빙판이 녹아 내리고 있다.

전북환경청,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오염사고 예방 ·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강화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1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연휴 기간 중 철저한 시설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여기에 산업단지 등의 악성 폐수 배출업소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3단계 25일부터 27일까지는 설 연휴기간 중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환경관리 취약업체 및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 기관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 등 환경오염현장을 발견한 국민 누구나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전화(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설 선물세트,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 이용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맞이 선물세트 판매… 무료 택배 서비스 지원

설 명절을 맞아 전주시민들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주푸드 특별 선물세트가 판매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와 인근 시·군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 한우 등 선물세트를 전주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jjfoodmarket.co.kr)에서 판매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설맞이 특별전에서는 사과·배 등의 제수 필수 과일류 한우, 김부-각, 잡곡, 한과세트 등 명절 인기 품목의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전주푸드 특화상품은 송천직매장과 효천직매장, 종합경기장 직거래장터 등에 마련됐다. 명절 선물세트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무료 택배 발송도 지원한다.

택배 마감일은 목적지가 전주지역일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며, 타지역은 17일까지 주문해야 한다.

시는 이번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통해 전주지역 농가뿐 아니라 전주지역 사회적기업과 식품가공 중소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에 선물세트 안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해왔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 전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 설 명절세트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추진

재난 발생시 경제 사회적 혼란 · 피해 야기할 수 있는 특별관리시설물 19개소 관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 국가핵심기반시설,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을 말한다.

2023년 1월 현재 전주덕진소방서에는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등 총 19개소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9개소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기반시설 등 중요시설 안전강화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 대상 자율점검 실시 및 컨설팅 지도, 민간 관리 대상물 월 1회 소방시설 외관 점검 실시 지도, 시설물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 체험교육 강화, 특별관리시설물 이용자 대상 화재예방 홍보 강화, 소방공무원 현장방문행정, 시설 인근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정비 및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 화재예방 순찰'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서 재난 발생시 경제 사회적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의 특별관리와 특별관리시설물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 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대여… 안전 · 쾌적한 서비스 제공

전주시설공단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빌려주는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란 휠체어 이용객의 승하차가 가능한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장애인의 휴일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하루 이용료는 3만 원으로 렌터카보다 저렴하다. 이용 대상은 '이지콜' 이용객이다.

전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은 장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만 26세 이상의 1종 보통면허 소지자를 운전자로 지정해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로 연휴 최대 4일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이지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용객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이지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